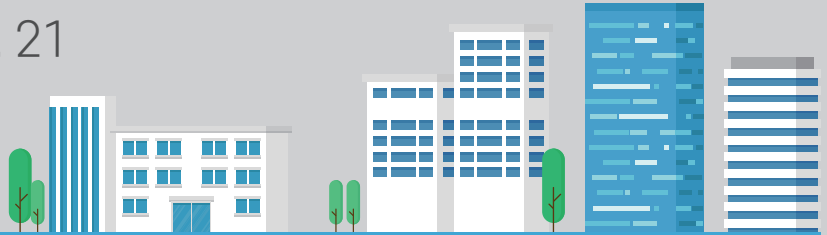


2022년 주거실태조사

2022. 6. 13 ~ 2022. 10. 21



주거실태조사란?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 및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우리나라 주택 및 주거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주거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기관

조사의 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조사 기획은 국토연구원이 담당하고 한국리서치에서 조사를 수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응답하신 분의 성함, 연락처, 주소 외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일절 조사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과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에 따라 학술 및 정책 개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문의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홈페이지 : <http://www.krihs.re.kr>

전화번호 : 044) 960-0318

e-mail : gunwoo881016@krihs.re.kr



홈페이지 : <http://www.hrc.co.kr>

전화번호 : 02) 3014-1025

e-mail : ohsm@hrc.co.kr

주거실태조사 소개

조사목적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는 전국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주거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주거기본법 제20조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규모

전국 일반가구 총 5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방법

면접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고 그 결과를 태블릿PC에 저장하는 TAPI 방식으로 조사(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를 실시합니다.

조사기간

2022년 6월 13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입니다.

주거실태조사 관련 기사

경향신문

2021. 08. 13.

소득 대비 수도권 집값 8배로 확대 자가보유율은 60.6%로 0.6%P 하락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 구매 때 비용부담을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수도권이 지난해 8.0배로 전년(6.8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전국 평균이 같은 기간 5.4배에서 5.5배로 소폭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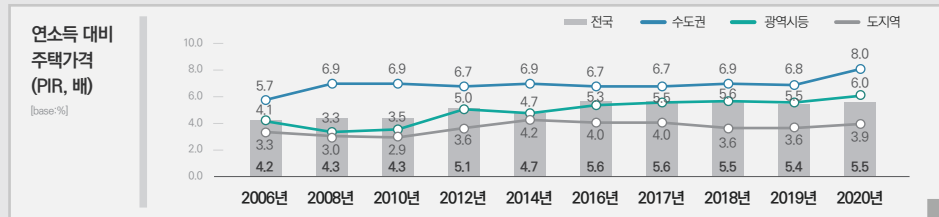
PIR은 월급을 받아 한 푼도 안쓰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데, 그간 5.7에서 6.9 사이를 오가던 수도권의 PIR이 8.0으로 치솟은 것은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점유율' 역시 58%로 전년 (57.7%) 대비 늘었다. 마찬가지로 2006년(53.6%) 이후 최고치다.

생애 첫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도 더 길어졌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지난해 7.7년으로 2019년(6.9년) 보다 늘었다.

(중략)지난해 임차가구(세입자)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는 지난해 전국 기준 16.6%로 2019년(16.1%)보다 0.5%포인트 뛰었다.

(중략)지난해 신혼부부의 자가보유율은 48.5%로 2019년(52.8%)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자가점유율도 49.3%에서 46.1%로 하락했다.



동아일보

2021. 08. 23.

생애최초 내집마련 늦어졌지만 '영끌' 청년층은 어려졌다

지난해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생애최초 주택마련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최근 4년 새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가구의 연령은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또 내 집 마련 때 주택가격(주택담보가치) 대비 금융기관 대출금 비율(LTV)이 일반가구는 최근 4년 새 가장 낮아진 반면 청년가구는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일반가구 연구보고서'를 국토교통 통계누리 사이트에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가구주의 연령은 지난해 39.9세였다. 현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39.1세에서 2018년 39.4세로 높아진 뒤 2019년에 39.1세로 다시 떨어졌다가 이번 조사에서 경총 뛰어올랐다.

또 최근 4년 새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가구주의 평균 연령도 43.7세로 전년(42.8세)보다 크게 높아졌다.

(중략) 지난해 일반 가구의 주택 구입 당시 LTV는 평균 37.2%이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청년층(46.3%)과 신혼부부(43.6%)의 LTV는 40%선을 훌쩍 넘었다. 특히 청년가구는 2017년 45.7%에서 이듬해(45.6%) 소폭 떨어진 뒤 2019년(46.3%)부터 다시 오름세로 바뀌었다.

(중략)내 집 마련 방법은 기존주택 구입이 60.8%로 가장 많았고,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21.7%), 증여 및 상속(11.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